강미나 대사 및 성고충 담당관(이지혜) 대사

간부인 제가, 그것도 여성인 제가 당했다고 소문이 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.

결국 그래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.

성고충 담당관 : 강 중사님뿐만 아니라, 다른 전우들에게도 그런 행동을 일삼고 있던 거군요.

강미나 중사 : 네,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,

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.

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심정을요.

(흐느끼며) 저한테 함정에서의 시간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.

성고충 담당관 : 그랬겠군요. 그럼 계속 참고 계셨다는건데

지금 신고를 했다는 건 또 어떤 일이 있었던건가요?

이진상 중사 대사 일부

강미나 중사 : 가면 갈수록 성적수치심을 가질만한 이야기들의 강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.

이진상 중사 : (화를 내며) 아니 친한 동료끼리 그 정도 농담도 못 합니까?

강미나 중사 : 저는 그 누구에게도 고통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. 아시잖습니까

이진상 중사 : (답답하다는 듯이) 아니 그런 게 상처가 되고, 싫었으면 그때 말했어야지 왜 인제 와서야 이러는 겁니까.

강미나 중사 : (흐느끼며) 저한테 함정에서의 시간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.